

다니엘의 책 - 번호 백오십삼

북왕국과 남왕국의 영적 상징성: 성경의 성전들과 인간 본성을 통한 여정

Jeff Pippenger

2024-03-23

북왕국은 인류의 성전에서는 낮은 본성을, 교회의 성전에서는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에서는 인성의 육체를 상징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전을 건축하셨고 모든 기초를 놓으셨으며, 밀러주의 성전에서 첫 번째 돌은 '일곱 때'의 교리였는데, 그것은 에스겔의 두 막대기로 표상된다. 1863년의 반역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들의 예언적 '모퉁잇돌'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지상 성전의 건축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버림받은 그 돌은 온 건축 기간 내내 걸림돌이었으나, 성전 건립이 마무리될 때 택함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그 걸림돌로 버림받은 돌이 궁극적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밝힌다.

남왕국이 대표하는 "일곱 때"의 막대기는 북왕국과의 관계에서 "머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도시로 정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성소와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하신 곳이 남왕국이었기 때문이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두 막대기가 합쳐질 때까지, 그 "머리"는 아래쪽, 곧 남왕국이었다. 1844년에 요한이 북왕국을 내버려두라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는, 지시를 받아, 남왕국은 한 나라로서 홀로 서 있는 기치로 남겨졌다. 적어도 그것이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1863년의 반역과 현대 이스라엘의 첫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인해 방해되었다.

2001년 9월 11일에 주께서는 자신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1863년으로, 1888년으로, 1919년으로, 그리고 1957년, 곧 두 번째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바로 그 반역 가운데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 그 약속은 십사만 사천으로 표상된 자들 안에서 성취되며,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영원토록 이루신다.

바울은 낮은 본성을 육신으로, 높은 본성을 마음으로 규정했다. 그는 몸(낮은 본성)을 죽음이라 규정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임을 안다. 그러나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선을 행하려는 뜻은 있으나, 선을 이루는 능력을 찾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한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로마서 7:14-24.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는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육체(그의 몸)에 존재하던, 타고난 것과 길러진 성향들은 그를 죄로 이끄는 데에만 작용했다. 그 성향들은 죄의 법을 나타냈지만, 바울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의 법'(그의 더 높은 본성)이라고 보았다. 그의 부르짖음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였다. 물론 바울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신적 능력임을 알았지만, 그 구원의 일에는 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이제 더욱더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니라. 빌립보서 2:12, 13.

사망의 몸에서의 해방은 인간의 능력과 연합된 신성한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곧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본이었다. 비록 죄의 법이 육체의 하위 본성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함으로써 그 하위 본성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키셨다. 바울도 자신의 뜻을 신성의 뜻에 굴복시킨다면 해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었으며, 이것이 곧 화이트 자매가 우리의 생애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에 대하여 말할 때 의미하는 바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거부하는 모든 영혼은 다른 권세의 지배 아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는 자유를 말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 그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자신이 자기 판단에 따른다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그는 어둠의 군주의 뜻에 복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죄의 종살이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한다.' 로마서 8:2.

구원의 역사에는 강제가 없다. 어떠한 외적 강제도 사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에서 사람은 누구를 섬길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놓여 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일어나는 변화 속에는 최고도의 자유가 있다. 죄를 몰아내는 일은 영혼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큰 필요 가운데 우리 밖에 있으며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영혼의 능력은 성령의 신적 능력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의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죄는 오직 정신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으로의 회복, 곧 인간의 참된 영광과 존엄으로의 회복이다. 우리가 복종하게 된 하나님의 법은 '자유'의 율법'(야고보서 2:12)이다. 시대의 소망, 466.

바울은 외쳤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기를 갈망하고,

절박한 필요 속에서 우리 밖에 있고 우리를 초월한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영혼의 능력은 성령의 신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의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결합하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죄를 제거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의지의 참된 힘"이다. 의지란 "인간 본성 안에서 지배하는 능력, 곧 결정 또는 선택의 능력이다. 모든 것은 의지가 올바르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선택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여러분은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스스로는 마음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온 본성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애정은 그분께 집중되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자신의 낮은 본성이 높은 본성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진 너희에 대한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자신의 옛 본성을 복종시키기 위해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그 옛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24.

바울은 죄된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류 안에 존재할 것이며, 그때 신실한 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1798년은 밀러파 성전이 세워진 사십육 년이라는 기간의 기초를 가리키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터로서,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다. 북왕국은 곧 몸이었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 위에 우세를 점하고 스스로를 높여 거짓된 북왕국이 되었다. 1844년에 요한은 뜻을 'leave out'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더 높은 본성 위에 우위를 점한 낮은 본성을 거부하라는 뜻이며, 1798년에는 '정과 욕심'과 함께한 육체(낮은 본성)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으셨고, 산 자들로부터 끊어지셨다. 그때 남왕국은 한 왕을 가진 하나의 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 조목조목, "일곱 때"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2001년 9월 11일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북방의 군대"를 깃발로 삼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군대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 나라는 오직 그분의 형상만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탄은 짐승의 형상인 자기의 "뿔"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에스겔 37장에서 네 바람의 기별이 그때 그 군대로 일어서는

자들에게 늦은비의 기별을 불어넣는다. 네 바람의 기별은 일곱째 나팔의 기별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

인침의 최종 사역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되었다. 14만 4천의 인침의 때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에 성취되며, 그 나팔은 인침 과정에서 세 차례 울린다. 그것은 항상 영화로운 땅을 향한 이슬람의 일격을 가리키는 표징이다.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은 2001년 9월 11일에 타격을 받았고,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은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바로 그 해인 2023년 10월 7일에 타격을 받았다. 세 번째 일격은 미국에서 임박한 주일법의 때에 해당한다.

2023년 10월 7일 이래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적 뿔과 참된 개신교적 뿔은 머지않아 도래할 일요일 법령 때에 용처럼 말하는 뿔이거나 어린 양처럼 말하는 뿔로의 최종적 전환을 이루어 가고 있다. 지구 역사의 종결기에 전개되는 대쟁투에서 내부적 대적과 외부적 대적이 각기 나타내는 두 양상은 다니엘서 11장 40절이 표상하는 역사 속에 모두 위치한다. 두 뿔 각각의 최종 전개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 이루어진다. 일곱째 나팔은 세 화의 나팔 가운데 셋째이다.

세 화는 예언의 삼중적 적용을 나타내며, 그리함으로써 2023년 10월 7일이라는 이정표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언한다. 첫째 화와 둘째 화 모두에서, 이슬람의 전쟁 행위는 로마의 군대, 곧 말세에는 미국으로 상징되는 그 군대에 대항하여 수행되었는데, 이는 1989년에 적그리스도(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거짓 선지자(로널드 레이건) 사이의 비밀 동맹에 의해 초래된 소련의 정복이 이를 증언한다.

요한계시록 제9장에 제시된 첫째 화에는 다섯 달, 곧 백오십 년에 해당하는 기간 예언이 있다. 둘째 화에는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기간 예언이 있다. 이 두 기간 예언은 첫째 화와 둘째 화를 대표하는 두 역사 동안 이슬람이 로마에 가한 전쟁을 표상한다. 그 두 예언은 그 전쟁의 상이한 두 결과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백오십 년 동안에는 이슬람이 로마를 '해할' 것이었고,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예언에서는 이슬람이 로마를 '죽일' 것이었다. 그 두 예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슬람이 로마를 '해할' 것으로 정해진 그 백오십 년의 끝은, 이슬람이 로마를 '죽일' 것으로 정해진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시작을 지시하였다. 첫째 화와 둘째 화는 그 백오십 년의 종료와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시작에 의해 구분된다.

미합중국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그때 그것은 예언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는 임박한 일요일 법령이며, 그때가 이르면 이슬람의 일곱째 나팔도 함께 도래한다. 그 나팔은 말세의 로마의 군대인 여섯째 왕국의 종결, 곧 그 죽음을 알리기 위해 도래한다. 그 죽음에 앞서 150년 동안 이슬람이 로마의 군대에 타격을 가해 왔다. 현대 세계에서 급진 이슬람의 활동을 축소하려는 주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 글을 작성하는 2024년 2월 12일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이익을 상대로 165건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첫째와 둘째 화에서 로마 군대를 상하게 하여 마침내 죽임에 이르게 한 이슬람의 150년의 기간은, 예언의 삼중 적용의 작동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셋째 화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일곱째 나팔의 울림은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며, 두 막대기의

연합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여기에 세 개의 이정표가 있다. 첫째는 영적 영화로운 땅이며, 마지막 또한 영적 영화로운 땅이다. 가운데 이정표는 문자적 영화로운 땅이다.

2023년에 셋째 화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의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이슬람의 전쟁이 “땅의 짐승”을 “해치는” 시기로 들어가며 격화되는 것을 가리켰다. 같은 해에 공화주의의 뿔과 참된 개신교의 뿔이라는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각기 최종적인 상징적 뿔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공화주의의 뿔의 경우, 배도한 모든 개신교 권세들과 배도한 모든 공화주의의 권세들이 결합하여 짐승의 형상인 하나의 뿔을 이루는 것이었다. 참된 개신교의 뿔의 경우에는, 그 뿔이 품성에 있어 라오디게아적 상태에서 빌라델비아적 상태로 전환되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였고, 이는 짐승의 형상의 반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3년은 2001년으로부터 스물두 해가 지난 해였으므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는 상징적 연결을 나타내었다.

이 모든 역사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일어난다. 그 절은 1989년에 봉인이 풀려 지식의 증가를 일으켰고, 히데겔 강으로 상징된다. 그 절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는 지성소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성취되는데, 이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빛이며 올래 강으로 상징된다. 40절의 시작은 1798년의 끝의 때를 지목하고, 그 절의 끝은 1989년의 끝의 때를 지목하며, 두 강은 40절의 역사 속에서 합류한다. 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올래와 히데겔)가 페르시아만에 이르기 직전에 합류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의 문이 열림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무거운 심령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그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옛 폐허들을 다시 세우며, 옛적의 황무함을 일으켜 세우며, 황폐한 성읍들, 곧 여러 세대에 걸쳐 황폐하였던 것들을 중수하리라.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의 양 떼를 먹일 것이며, 이방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지기가 되리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를 것이며, 너희는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자랑하리라. 너희의 수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갑절을 얻을 것이며, 능욕을 대신하여 그들은 자기 분깃으로 기뻐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은 갑절을 소유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나 여호와와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를 위하여 행하는 강탈을 미워하며,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씨는 이방인들 가운데 알려지고, 그들의 자손은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겠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으니, 신랑이 장식으로 스스로 단장함 같이,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스스로 단장함 같이. 땅이 그 싹을 내게 함 같이, 동산이 그 가운데 뿌려진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11.